

2011년 3기 : 7~9월

# 사업장려 선교지소식

03

| 한국연합회 안교·선교부 |

## 차 례

### 선교지소식

지도자 지침서 .....	4
(1) 꿈은 이루어진다 .....	6
(2) 휘방꾼에서 조력자로 .....	9
(3) 심경의 변화 .....	12
(4) 하나님의 놀라운 학교 .....	15
(5) 두 번째 기회 .....	18
(6) 휘방꾼 .....	21
(7) 한 권의 책 .....	24
(8) 오로지 하나님의 것 .....	27
(9)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	30
(10) 신실한 안식일 준수자 .....	33
(11) 선교사 .....	36
(12) 축복받은 실망 .....	39
(13) 13째 안식일 순서 .....	42

### 사업장려

(1) 찬양이 있는 성경학교 .....	47
(2) 고난의 학교 .....	48
(3) 장막절, 오직 예수 .....	49
(4) 시간을 투자하자! .....	50
(5) 젊은이를 단에 세우자! .....	51
(6) 최적의 피서지, 하나님 .....	52
(7) 여행이 주는 의미 .....	53
(8) 우리의 이름, 성도 .....	54
(9) 생명이 생명을 낳고 .....	55
(10) 기적의 100달러 .....	56
(11) 그리스도 마케팅 .....	57
(12)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하여 .....	58
(13) 내 말과 내 전도함이 .....	59

## 안식일학교 현황 (2011년 2기)

구분 \ 합회명	동중한	서중한	영 남	충 청	호 남	제주	연합회
안 교 수	268	193	182	158	147	13	961
안 교 생 수	35,999	31,142	11,498	19,900	13,378	914	112,831
평균출석생수	17,803	19,544	8,415	9,430	6,460	441	62,093
매일공부자수	6,789	8,008	3,514	3,484	2,343	98	24,236
평신도전도회 수	83	106	45	43	25	0	302
청년선교회 수	108	142	60	57	48	2	417
AY 회원 수	3,297	2,971	963	936	540	35	8,742
학 생 회 수	103	121	91	55	56	4	430
학생회원 수	2,578	2,235	633	621	701	48	6,816
패스파인더 수	45	93	26	38	39	3	244
패스파인더 회원 수	1,103	1,940	288	553	667	56	4,607

# 선교지방 소개



## 지도자 지침서

### 13째 안식일 헌금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 (1) 카메룬 코센다이 삼육대학교에 과학관 건물 건축
- (2) 가나의 벨리뷰 대학교와 그 주변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건축
- (3) 어린이 특별선교계획: 지회 지역 전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 도구로

사용될 학용품 세트 구입

이번 기에는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회에는 22개의 나라들이 속해 있는데, 동서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으로부터 수단 국경까지의 나라들이 포함되고, 남북으로는 북쪽의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차드로부터 남쪽의 콩고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포함됩니다.

863,000명 이상의 재림교인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교인 비율은 인구 390명 당 한 명입니다. 이들은 서부 아프리카 전역에 흩어져 있는 7천 곳 이상의 예배소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의 북부 지역 대부분은 다른 나라들이 울창한 밀림 지역에 덮여 있는 것과 달리 사막이거나 반사막지대입니다. 대부분 바닷가를 따라 위치하고 있는 현대적인 도시들에는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많은 인구가 내륙 지역 전역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촌락에서 진흙과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나 초라한 시멘트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며 생활하면서 겨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달프므로,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결이 교육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가난과 한계생존의 삶을 딛고 일어나 그들의 꿈을 좇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재림교회는 모든 수준의 학교들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린이들은 그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가족들은 그들을 더 잘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회 지역에 속한 수백여 개의 삼육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재림교인 교사들은 배

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더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아프리카 청년들은 비종교적 및 종교적 수용력 모두를 가진 대학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 소속 2곳의 대학이 그들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 가운데 일부가 이들 대학교 교정에 필요한 건물들을 세우는 일을 돕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7월 2일 안식일

카메룬

## 꿈은 이루어진다

미리암, 에밀리

-----

- 카메룬은 적도에 매우 근접하게 대서양을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기후는 열대 기후입니다.

- 카메룬의 정글과 평야에는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영양, 사자, 코끼리, 그리고 여러 종의 새와 뱀 등 수많은 종류의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 카메룬 국민 대다수가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지만 공용어는 영어와 불어입니다.

-----

미리암은 카메룬에 있는 주립 대학교에서 그녀의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며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학생들이 아무런 재정적인 도움 없이 공부를 하기는 어렵지만 미리암은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고자 학위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몇 해 전 그녀가 재림교인이 되었을 때, 그녀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교인이 아니었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새로운 신앙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 새로운 대학교

미리암이 코센다이 삼육대학교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녀는 그곳에서 공부하기를 꿈꿨습니다. 그 학교는 갓 설립된 학교였고, 그곳의 학생과 교수들은 모두 선구자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업은 카메룬의 수도로부터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삼육중고등학교의 교정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주립대학교의 학비조차 지불할 형편이 못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녀가 지도자로, 또 봉사자로 훈련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 장애물이거나 디딤돌이거나

미리암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기 전까지 주립대학교에서 2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찾아 일했고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수 있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을 열심히 일했지만 그녀가 모은 돈은 겨우 80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하나님께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코센다이 삼육대학교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미리암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에밀리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리암은 에밀리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돈이 없었고 그녀의 가족들도 그녀를 도울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은 에밀리도 그녀와 함께 코센다이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에 미리암은 에밀리에게 그녀가 코센다이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입학금을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밀리는 즉시 입학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하나님의 도우심

곧 미리암은 자신의 충동적인 결정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입학금마저 겨우 낼 돈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밀리의 입학금은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녀의 학기 등록금으로 필요한 700불은 또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그렇지만 미리암은 꼭 에밀리와 함께 그 학교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필요한 돈을 마련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에밀리도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리암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돈이 얼마나 있지?”

“조금 있어.” 미리암이 회피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에밀리는 다시 물었고 미리암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200불이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꼭 주실 거야.” 미리암은 200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며칠 후에 몇몇 교인들이 미리암을 위해 돈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도 그녀에게 돈을 조금 주었습니다. 미리암은 그 돈을 세어 보았고 그것이 200불임을 발견했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자신이 조금이나마 의심한 적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들이 코

샌다이로 떠나기 전에 다른 교회 교인들도 미리암에게 90불을 갖다 주었습니다. 미리암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넘쳤습니다.

### 보상 받는 믿음

그 소녀들은 학교에서 지낼 장소를 구했고 첫째 달 등록금과 입학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녀들의 고향 교회에서는 매달 그녀들에게 약간의 돈을 보내 주었고, 학교가 쉬는 날에 그녀들은 집집을 다니며 책을 팔아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녀들은 계속 내야 할 돈을 제때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리암이 방학 중에 병이 걸려 몇 주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몇 주 동안이나 일해서 벌어야 할 만큼의 돈을 그 방학 첫 주에 보내주면서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미리암은 학교의 손님방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녀는 유쾌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다한 진심입니다.

미리암은 최근에 코센다이에서 간호학 전공을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아직 졸업하지 못한 에밀리에게 그녀의 남은 마지막 1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녀에게도 해주실 것을 믿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안식일

카메룬

## 훼방꾼에서 조력자로

존

-----  
 - 카메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코센다이 삼육대학교는 수도인 야운데에서 약 4시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 이 대학교는 신생 학교이고 대학교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삼육중고등학교의 교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룬 교회와 이 대학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현금 가운데 일부가 이 대학교에 과학관을 세우는데 사용되어 이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더 잘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

[한 젊은 남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존이고,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있는 작은 나라인 세네갈에서 왔습니다.

15살 때, 저는 사람들이 저희 마을의 한 공개된 장소에 긴 의자들을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 남자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았고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집회를 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란다. 너도 꼭 참석하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집회가 재림교회 집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어린 훼방꾼

저는 제가 처음으로 재림교인을 만났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7살 때 저의 가족은 다른 마을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마을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는데 그들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7일 동안 세워진 교회인줄 알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 길에 서서 그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을 따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삼촌과 함께 살고 있었고, 어렸을 때 제가 야유를 보내던 바로 그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림교회 기별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 견고한 믿음

방학이 되어 저는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밖에 앉아서 어떤 젊은 친구들이 집집을 다니며 사람들을 집회에 초청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저에게도 그 집회에 참석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들도 재림교인임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심지어 전도회가 끝난 뒤에도 저는 새로운 재림교인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제 삶을 내려놓고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함께 재림교회를 휘방하고 다니던 제 친구들도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와 같이 침례를 받기로 한 소년들 중에 한 소년이 가족들로부터 재림교회에 가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침례 받기를 포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 새로운 생명, 새로운 도전

방학이 끝나고 저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 삼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토요일 수업에 참석하기를 거부했을 때, 저는 퇴학을 당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교인들이 제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저를 삼육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안식일 준수가 전혀 문제 되지 않은 학교에서 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간호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카메룬에 있는 새로운 삼육대학교인 코센다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고향인 세네갈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저는 그곳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여행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에

가려면 버스로 10일이 걸리는 먼 여행이었지만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시 교인들이 그런 제 결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저를 후원해주었고 그러한 제 결정을 지지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교인들은 저에게 비행기 표까지 사줘서 제가 버스로 여러 나라들을 거쳐 거의 2주 동안 여행할 필요 없이 단 몇 시간 만에 카메룬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하나님께 돌려드릴

저는 현재 코센다이에 삼육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볼 수 없으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희생입니다. 고향의 제 교회에서는 계속 학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네갈로 돌아가 제 마을에 있는 재림교회 진료소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 대학교는 신생 학교이고 고등학교와 교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 가운데 일부가 간호학과 학생들과 의료공학과 학생들이 그들의 분야에 관한 실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료연구실 건물을 짓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들의 학문을 향상시키도록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월 16일 안식일

카메룬

## 심경의 변화

이사야

-----

- 카메룬의 대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급자족하는 농민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음식으로는 옥수수, 요리했을 때 감자 맛이 많이 나는 뿌리작물인 카사바, 땅콩, 마, 바나나처럼 생긴 플렌테인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분이 많은 뿌리 식물과 곡물들로 주로 요리하거나 죽으로 만들어 식물에서 얻어진 매운 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시골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소나 염소를 키운다 하더라도 고기와 쌀밥은 사치스러운 음식입니다.

-----

이사야는 부모님의 화난 목소리에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또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안식일에 이사야를 데리고 교회에 가고 싶어 했고, 아버지는 그냥 그가 밭일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사야는 보통 아버지와 함께 일요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너무나 속 타게 만드는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코센다이 삼육기숙학교에 그를 보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11살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집을 떠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나와 매형과 함께 그 학교에서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야 이사야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반향

이사야는 코센다이에서 누나와 매형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토요일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그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받을 위협 사이에서 괴로웠습니다. 때때로 그는 교회에 가는 척 하다가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누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는 그가 누나는 맘에 들지 않았지만, 강제로 교회에 가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야의 사촌형인 티에리도 누나네 집에서 같이 살기 위해 왔습니다. 이사야는 그 형을 존경했고 그 형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는 사촌형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 어디가요?”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 “나도 같이 갈래요.”

“성경 공부하러 가.” 티에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침례 받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 이사야는 형을 따라 교회까지 걸어갔습니다. 티에리가 성경 공부를 좋아한다면 이사야도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도 형과 같이 갈래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을 반겼습니다. 이사야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을 주의 깊게 듣고는 그가 그동안 그런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었을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공부를 마치면서 목사님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사야는 침을 꿀꺽 삼켰고, 그의 입은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어들이 불안정하게 그의 입에서 더듬더듬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났을 때, 이사야는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행복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좋은 기분을 느꼈고 그것을 좀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도 침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 아버지는 어찌지?

그런 다음 이사야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재림교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그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그가 깨달은 것이 예수님 안의 진리이고 그것을 믿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사야는 사촌형과 함께 그 침례 공부반에 계속 참석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티에리와 함께 성경공부에 계속 참석했고, 사촌형과 함께 침례를 받을 바로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촌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이사야는 가슴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도 그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나 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아버지가 거실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네가 재림교인 되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이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사야는 불편한 듯 자리를 고쳐 앉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벌떡 일어서자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말도 없이 자신의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안식일에 회중들은 침례식을 축하하며 모였습니다. 이사야는 단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날이 오리라곤 생각지도 않았던 자신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 이사야의 소망

이사야는 침례를 받은 이후로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이제 15살 밖에 되지 않은 이사야를 계속 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야는 아버지로부터 그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작은 희망의 표시인 용돈 10불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저는 제가 재림교회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을지라도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 학교에 다니고 난 뒤로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아버지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안식일에 저를 교회에 보내기 위해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저는 일주일에 세 번 교회에 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코센다이에서 공부함으로써 저는 저의 구세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신 일들로 인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현금 가운데 일부가 코센다이 삼육대학교에 의료실습실 강의동을 세우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새로운 대학교의 간호학과 의료공학 프로그램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대학교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그리고 카메룬 청년들이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월 23일 안식일

카메룬

## 하나님의 놀라운 학교

엠마

-----

- 카메룬에는 약 108,400여 명의 재림교인이 있습니다. 그곳의 전체 인구는 1,900만 명입니다. 즉, 175명 당 한 명의 재림교인 비율입니다. 이 비율도 적지 않은 비율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법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카메룬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모든 삼육학교 선생님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엠마이이고 카메룬에서 왔습니다. 카메룬 사람들은 불어나 영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불어를 합니다. 저는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카메룬에서 불어로 간호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불어 수업 학교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카메룬의 수도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코센다이 삼육대학교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 학교는 불어로 수업도 하고 간호학과도 있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재림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에서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도 받아들여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성분은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다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에 합격했고 학기가 시작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집

을 싸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어줄 버스에 올랐습니다.

### 새로운 경험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시골길을 지나 거친 비포장 길을 달려, 어둠이 내린 한참 뒤에야 마침내 그 대학교에서 가까운 도시인 낭가에 도착했습니다. 학교는 그 도시에서 가까웠으므로 저는 오토바이 택시를 탔습니다. 진흙 길을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달려서 저는 곧 여기숙사 앞에 내렸습니다. 당번인 한 학생이 저를 방으로 안내했고, 저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 쓰러지듯 지친 몸을 누였습니다. 낡은 건물을 둘러보며 저는 많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를 둘러보기 위해 교정을 거닐었습니다. 건물들은 오래 되어 낡았고 저는 무엇인가 좀 더 근사한 게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떤 흙 길을 따라 가보니 넓은 건축부지가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대학교 교정 부지라는 뜻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도 멋진 학교가 되겠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낡은 교정에서 지내야만 하다.’ 더군다나 그 대학교는 새로운 교정이 완공될 때까지 고등학교 교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수업들이 이른 아침 7시부터 시작하고 어떤 수업은 밤 10시에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드리는 매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화요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있는 한 주 세 번의 채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개신교회 교인이었지만 교회에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정말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 예배를 배움

저는 마지못해 첫 번째 채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음악은 감동적이었고, 강사의 설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샌가 저는 채플 예배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재림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빠르게 알아나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토요일을 그들이 부르는 안식일로 구별하여 창조주와 함께 보내는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곧 그것은 저에게 아름다운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코센

다이에서 성경책은 선반 위 장식품이 아니라 인생의 교과서이자 구원으로 이끄는 안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배시간 동안 설교 내용에 따라 볼 수 있도록 채플 시간에 저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코센다이에서 저는 성경책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것은 제가 대학교에서 배울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 변화된 삶

제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듣기를 좋아하시므로, 집에 갈 때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배운 것들을 전합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제 성경책을 말없이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교의 강사인 제 언니는 저에게 때 지난 저의 안식일학교 교과책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코센다이에서 두 번째 해를 맞이했고 제 삶은 너무도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올 해부터 저는 기숙사에서 나와 살고 있으므로 모든 채플 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므로 저는 그 예배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적절한 때에 저는 정식으로 재림 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코센다이 삼육대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은 전 세계 삼육 교육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 가운데 일부는 코센다이 삼육대학교의 새로운 교정을 만드는 일을 돕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7월 30일 안식일

카메룬

## 두 번째 기회

크레센트 아사나

-----

- 크레센트가 다니는 학교는 현재 코센다이 삼육대학교와 시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를 운영하기 위해 종종 수업들이 밤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 코센다이 삼육대학교의 새로운 교정은 현재 부분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완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 가운데 일부가 간호학과, 약학과, 및 기타 의학 분야 학생들에게 적절한 배움의 장소를 제공해주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되는 의료연구실 건물 건축에 사용될 것입니다.

-----

[한 십대 남자 청소년이나 남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 친구들과 저는 디스코장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저희는 어렸고 반항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저희가 매우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제 친구가 아버지 허락도 없이 끌고 나온 차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힘차게 시동이 걸렸고 저희는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거칠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저희는 피곤했습니다.

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서서히 넘어가자 제 친구는 낄낄 웃으며 갑작스럽게 운전대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 그 어둔 밤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충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 구사일생

정신을 차린 저는 엉망으로 짓이겨진 차에서 간신히 빠져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술에 취해 멍한 상태에서 서도 저는 그들이 모두 죽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감각했고 저는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저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난 일을 잊기 위해 TV를 켜었습니다. 술에 취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우리들, 충돌, 구겨진 차체, 그리

고 가장 최악의 것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친구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장면들로부터 주의를 돌려줄 만한 프로를 찾아 저는 계속 채널을 돌렸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무시하고 TV를 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실날 같은 희망

어떤 화면에서 한 남자가 이야기, 아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더 깊이 몸을 누이고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꽉 쥐고 있는 주먹에 힘을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남자의 말이 저를 감싸고 있는 어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아서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서서히 경직된 제 몸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 속의 목사님은 시청자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제 친구들은 이미 늦었고, 어쩌면 저도 너무 늦을 뻔 했습니다. 저도 사실 친구들과 차 안에서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모님의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너무 늦었지만, 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TV 속의 강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제 입술에서는 갑작스러운 흐느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제 가슴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옳았음을 알았고 변화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술도 끊고 디스코장에서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것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분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감이 넘쳤지만, 염려의 눈빛도 보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변화될 수 없음을 부모님도 아시고 계심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 인생의 두 번째 기회

몇 주 뒤에 저는 어머니로부터 그녀를 매우 감동시킨 한 젊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삼육대학교에서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러는데 그 대학교에는 고등학교도 있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 그 학교에 다닌다면, 기독교 환경 속에서 그 영향을 받으며 지낼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코센다이 삼육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간 뒤로 제 삶은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는 예배를 매일 아침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한때 저는 그러한 규정에 반발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저를 위한 것이고 제가 공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규정들임을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학교는 결코 중요한 곳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 저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을 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방학에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옛 친구들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이 제가 그들이 한때 알던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새로운 사람이란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자신들을 그분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제 삶이 그 증거입니다.

8월 6일 안식일

카메룬

## 혜방꾼

데지레 은디비

-----

- 카메룬 인구 1,900만 명 가운데 재림교인은 약 108,400명입니다. 하지만 카메룬의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기별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 아직도 재림기별이 전해지지 않은 오지에서 평신도 복음전도자와 세계 선교개척자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남성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카메룬 서부의 한 작은 마을 바로 외곽에 있는 강을 향해,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 걸어가며 찬미를 불렀습니다. 강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한 여자가 그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저리가!”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이곳은 내 조상님들의 장소야. 이곳에서 너희들의 마법의식을 행할 수는 없어!” 그녀는 머리 위로 칼을 흔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 무서운 위협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웠던 재림교인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강은 어떤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에게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법을 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곳에 새로운 신자들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그 전 날 침례식을 위해서 흐르는 강물을 막아 잔잔한 물웅덩이를 만들기 위해 강에 들어가 돌을 쌓아 침례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르는 길을 야자수 잎과 꽃으로 장식하여 축제 기분이 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전에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 쌓아둔 돌들이 무너져 있고 야자수 잎과 꽃들이 엉망으로 흐트러진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그녀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여자의 고함소리에 생각에 잠겨 있던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침례식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까? 그녀가 위협한 대로 누군가를 헤치면 어찌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 보았습니다. 침례식을 연기한다면 그들이 실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 믿음으로 나아감

그녀의 고함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침례식을 거행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한 다음 물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을 사람들은 강가에 줄을 섰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에게 계속 욕을 하며 소리 지를 때 찬미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로 침범거리며 들어가 머리 위로 칼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조상이 이 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고함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침례식을 계속 진행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제가 물속에 발을 넣자, 그녀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칼을 집어서 강가에 서있던 장로님께 주었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물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한 명씩 한 명씩 새로운 신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모두 강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던 그 여자는 물속에 뿌리를 내린 듯이 서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강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휘방꾼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녀가 제 기도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 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는 일어섰고 그녀의 칼을 들고 있던 장로님은 그 칼을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균중 가운데 흘렀습니다. ‘그녀가 다시 흥분할까? 그녀가 우리를 다시 공격하려 할까?’

### 놀라운 사과

“제가 한 짓을 용서해 주세요.” 놀랍게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에 놀란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집을 방문해도 될까요?”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이 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과 함께 저는 그녀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곧 그녀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강에서 처음 만나고 나서 오래지 않은 어느 날, 하다는 자신의 침례식을 위해 그 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다는 그날 홀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고 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그녀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것을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는 40명 이상이 모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근처 마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현재 다른 예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협을 축복으로 바꾸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한 여자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교 헌금이 전 세계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 새로운 신자들의 모임을 만드는 일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데지레 은디비는 카메룬 코센다이 삼육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안식일

가나

## 한 권의 책

올리버 에순

-----

- 가나는 코트디부아르와 토고 사이에 있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가나는 아프리카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첫 번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독립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 가나 국민들은 100여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인종 및 언어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서로 간에 평화를 유지하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한 남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문제아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모든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제 행동이 다른 형제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똑똑했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끔은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신앙적이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셨으므로, 그들은 저를 순종적인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 책을 파는 남자

어느 날 어머니는 그녀의 가게에서 팔 물건들을 사기 위해 먼 도시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책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각 시대의 대쟁투'였습니다. 그는 그 책이 수천 명의 생명을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책을 샀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절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 책을 산 것입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그 책을 주셨습니다. 저는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이 대쟁투가 어떤 싸움을 말하는 걸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저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었고,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그 책에 참조 성경절이 포

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성경책을 찾아 그 절들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책이 성경을 가르치는 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진리를 향한 탐구

그 책은 안식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안식일이란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틀림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저는 한 친구가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안식일에 교회에 다니니?" 그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그 교회에 다니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교회는 카리스마틱 교회였지만 저는 교회들의 차이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그들이 원하는 아이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제가 성경에서 읽고 있던 것과 맞지 않는 것들을 그 교회에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지도자들에게 그것들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들은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그런 저를 보고 제가 재림교인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재림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 교회라면 제가 찾고 있는 해답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재림교인을 만났고 그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성경으로 답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를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가끔 길고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뿐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먼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아무 교회도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런 저를 이해했는지 저를 그의 교회에 데려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 하나님의 계획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자금을 모으기 위해 한 작은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 교사로 취직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취직 한 학교가 삼육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 있는 재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곧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재림교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제 삶의 변화를 보고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남동생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2년을 가르쳤지만, 정부에서 주

는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교사직을 그만 두었을 때, 그동안 밀린 제 급여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에 들어가 교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 저는 가나에 있는 삼육대학교인 벨리부 대학교에서 1년간 일하면서 필요한 사회 봉사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 일은 제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습니다.

### 한 권의 책

제가 10대 일 때 어머니가 그 책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저는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 당시 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곤궁의 길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권의 책으로 제 삶을 돌이켜 저를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제 가족들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 책에서 진리를 발견한 뒤로 저는 제 신앙에 너무 빠져서 가족들에게 다른 종류의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제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계속되는 저의 사명입니다.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출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헌금이 이 출판 사업을 후원하여 저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8월 20일 안식일

가나

## 오로지 하나님의 것

사무엘 도르그베틀

-----

- 가나 국민들은 수많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1/4가량인 약 24% 정도가 주술을 행하고 조상신을 섬기는 등의 전통적인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1/5정도인 약 20% 정도는 회교도이고 거의 같은 비율로 개신교인들이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전통 신앙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 가나에는 약 35만 명의 재림교인이 있습니다. 69명당 한 명의 재림교인 비율입니다. 가나의 재림교인들이 우상들이나 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한 남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가나의 이교도 마을, 이교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고, 자신들의 안전을 빌고 추수를 할 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신들에게 동물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노해서 저희를 병들게 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까봐 두려워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생기는 모든 나쁜 일들, 심지어 두통까지도 저희가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새로운 학교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도 수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으므로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근처 마을에 삼육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빨랐고 곧 제 친구들과 가운데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학교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회에 다닐 것을 요구했지만, 저희 부모님

은 신들을 노엽게 하면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 저를 교회에 못 다니게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보이는 게 싫어서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안식일에 교회에 가기 위해 몰래 빠져나올 생각이었지만, 부모님은 주말에 밖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그들 전부가 기독교인이나 재림교인은 아닌데 재림교인 학생들이 더 정직하고 친절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더 신기했던 것은 그 어떤 재림교인 학생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죽었으므로 그것은 저에게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이 기독교인 어린이들을 죽음에서 보호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경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저는 부모님이 숭배하던 우상들에 점점 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 변심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학교가 있는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섬기던 우상들을 저버리고 오래지 않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혼이 날까 두려웠던 저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집에 가고 싶지 않았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남아 있을 변명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집으로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더 버틸 수 없었던 저는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서 제가 기독교인인 된 것을 알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주말에 농장에 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학교로 돌아갈 때 음식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음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학비를 보내주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

교회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었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는 교회 재무와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좋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심을 알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현재 저는 가나 남부에 위치한 삼육대학교인 벨리뷰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학교를 보내야 할 다른 동생들도 많기 때문에 제 학비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학금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저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그분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음을 알고 있으므로 저를 끝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부모님은 재림교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제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제가 삼육학교에서 받은 교육으로 현재의 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저는 오로지 그분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즐기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제 가족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육학교로 저를 보내주심으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제 남은 생애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그분이 저에게 주신 축복을 그들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빨리 제 국민들에게 가서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경이로운 빛인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가나에 많은 학교들을 세우는 일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 가운데 일부는 벨리뷰 대학교에 누구나 와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짓는 일을 돕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8월 27일 안식일

가나

##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포데이 셀루

-----

- 가나에는 약 35만 명의 재림교인들이 있습니다. 가나 교회는 많은 초등 학교와 약간의 고등학교, 그리고 수도인 아크라 바로 외곽에 위치한 종합대학인 벨리뷰 대학교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지난 몇 년 간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교정 곳곳에 강의동, 기숙사, 식당, 행정관 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정에 없는 단 하나의 건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 가운데 일부가 이 학교 교내 중심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

[한 남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포데이,”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어찌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의붓아버지는 교인이 아니었고 그가 저희를 계속 공부시키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고 앞으로 진학할 대학교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저의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물로 충혈된 눈으로 저는 학교 정원에 일을 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농업 선생님이 울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그가 물었습니다.

###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함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가 졸업하기 위해 봐야 할 마지막 시험을 치를 돈도 없다는 사실을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가 보라.”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의 말씀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재림교인이었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는 삼육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 갔을 때 그는 교목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거라.”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행정직원이 저에게 시험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주었을 때, 저는 누군가 제 시험 응시료를 대신 내준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시험을 보고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직 나에겐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 또 다시 저는 학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제 꿈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안식일학교 교장이 되어 교과반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저는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곧 저는 제 남동생과 여동생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직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았던 도움을 보답하도록 제가 다녔던 그 종교 학교에 가서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수업을 하고 다른 활동들을 진행하는 학교에 가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수업 일정을 조정하여 안식일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교사 회의가 안식일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안식일에 있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흔쾌히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안식일에 예정된 학교 일정에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사업으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 부르심에 저항했지만 그 부르심은 계속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제가 목사로 주님을 섬기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목사가 되는 교육을 받도록 합회에서 저를 부르게 하여 주소서.” 곧 합회장님이 저에게 벨리뷰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장학금을

제안하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일로 제 약혼녀와 함께 기도를 한 뒤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하고 벨리뷰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제 학비에 대한 재정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의 학비와 책값, 식비, 집세까지 버는 것은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그분은 저희를 축복하셨습니다. 저희는 도움이 어디에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내주실 것을 압니다.

### 하나님을 섬김

최근에 저희 전도팀은 세 도시에서 전도회를 열기 위해 시에라리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고향인 보(Bo)로 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전도팀이 시에라리온에 머문 2달 동안, 530명이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Bo)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면서 저희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보이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희는 봉사의 생애를 위한 건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준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벨리뷰 대학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 학교와 그 선교적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3일 안식일

가나

## 신실한 안식일 준수자

드보라 오다이

-----

- 가나의 인구는 약 2,400만 명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 절반 정도가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가나의 공용어는 영어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프리카어도 함께 사용합니다. 가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프리카어는 가나 중부지역 아산티족들이 사용하는 아칸어입니다. 아산티족은 그들의 뛰어난 조각술로 유명하고, 베를로 아름답게 짠 밝은 황금빛과 갈색, 암적색 및 검정색이 특징인 켄트천으로 유명한 족속입니다.

-----

드보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지자 몸이 움츠러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나가면 더 이상 너의 학비는 없을 줄 알아!” 그녀는 자신이 재림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을 아버지가 아시면 좋지 않을 것을 예상했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모진 소리를 듣고 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언제나 영적인 것에 호기심이 많았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위해 성경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드보라 가족이 세를 놓은 방에 이사 왔습니다. 그는 드보라에게 어떤 성경공부 안내서적들을 주었습니다. 그것들을 읽으면서 그녀는 안식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왜 그들이 일요일을 지키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보라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계속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 드보라의 새로운 학교

드보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부모님은 그녀를 삼육학교인 벨리뷰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학교의 높은 수준의 기독교 가치관에는 감명을 받았지만, 재림교인들로 하여금 그녀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늘 주의하

라고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과 안식일에 대한 그녀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그 학교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드보라는 교내의 기도회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신앙부흥 주간 동안 드보라는 그녀가 옳다고 믿는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맘을 정하기 전에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으므로 주저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의절을 하게 되더라도 저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고 난 뒤, 드보라는 총장님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드보라의 학비를 계속 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가 침례를 받아 아버지는 마음을 바꿔 그녀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함

드보라는 계속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 아침에 일찍 예배에 참석하러 집을 떠나 하루 종일 대학교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그녀의 새로운 신앙을 포기한다면 학비를 계속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에 충실해야 합니다.” 라고 그녀가 주장합니다.

드보라는 어머니에게 정결한 음식만을 준비해 달라고 하여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보다는 종종 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하신 일들에 비하면 굶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그녀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꿈을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밝은 빛을 보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계속 충실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꿈을 기억하면서 그녀는 매일 집에서 겪는 믿음의 시험들을 꾸준히 견디고 그녀의 신실함을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줌

드보라의 여동생도 재림교인이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그런 여동생에게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버티라고 용기를 줍니

다. “안식일 아침에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제 여동생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녀도 그녀가 믿는 것 위에 굳게 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드보라가 말합니다.

드보라는 벨리뷰 대학교에서 국제 개발학 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비를 벌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직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문서 전도자로 활동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제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안식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 호소

우리의 선교 헌금이 전 세계의 모든 학교들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되고,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 가운데 일부는 벨리뷰 대학교 내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현재 그곳 학생과 교직원들은 여러 회중으로 나뉘어 교내 곳곳에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강당과 교실, 식당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들은 모두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고, 예배 장소로 꾸며진 그 교회로 그들의 친구들을 초청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열정적입니다. 13째 안식일에 후한 헌금으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사

필립, 그레이스 메이요

-----  
 - 선교사들은 수많은 다른 종류의 일들을 합니다. 행정자로, 교사로, 또는 기술 분야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의사로, 간호사로, 치과 의사로도 활동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그것들이 가장 필요로 되는 세계 곳곳으로 나아갑니다.

- 선교사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 재림교회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천 명 정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여 나라로부터 와서 수많은 종류의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본향에 가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

[세 명이 인터뷰 형식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해설자: 선교사들은 한 나라나 한 대륙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와서 어느 곳이든지 갑니다. 마치 커다란 거미줄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인 세계 도처로 나아갑니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 출신의 필립 박사님과 그레이스 교수님 부부입니다. 이 분들은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벨리뷰 대학교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필립 박사님은 대학의 정보 기술 부장이고 비즈니스와 컴퓨터 과학을 가르칩니다. 그레이스 교수님은 보건과 영양학을 가르칩니다. 이 부부에게는 필리핀과 케냐에서 공부하고 있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교수님, 어떻게 그 대학으로 가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레이스: 저는 재림교인으로 자라지 않았습니 다. 그러다가 저는 학교에서 재림교인이었던 두 명의 자매를 만났습니 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했고 제게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교회에 참석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작은 마을에는 재림교회가 없어서 저는 안식일에 그들의 집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 다.

제가 주일학교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 다. 하지만 한 가정은 제가 떠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설명해주었고 제가 배운 성경절들을 알려 주었습니다. 곧 그들도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의 첫 번째 전도 열매였고, 저는 저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필립은 모태 재림교인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대학에 갔습니 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전혀 몰랐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필립: 저희가 벨리뷰 대학교에서 하나님을 섬긴 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함께 가르치는 일 외에도 저희를 무척 바쁘게 하는 여러 다른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내 학생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에도 늘 시간을 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문제를 모두 풀어줄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들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저희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들을 저희의 선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벨리뷰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그레이스는 보건과 영양학을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학생들을 데리고 지역사회로 나가 지역 주민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더 나은 보건과 영양으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교회 장로님들께 통역을 부탁하여 함께 나가 보건사업을 촉진하는 일도 합니다. 그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건과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레이스: 컴퓨터와 비즈니스 과목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필립은 학교의 전산 서비스를 관리하는 일로 바쁩니다. 노후한 장비들과 3천명 이상의 학생 규모에 비하면 전적으로 부족한 인터넷 환경에서 그 일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 다. 하지만 그는 과학 기술을 통해 대학교를 발전시키는 일을 돕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립은 학교에 광섬유 시스템과 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그와 그의 팀원은 학교의 학사 프로그램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그는 온라인 수업과정을 설치하는 일을 이끌면서 이 시스템 사용법을 교수들에게 교육합니다. 저희는 저희 대학교를 21세기에 걸맞은 대학교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일들을 혼자 관리함으로 대학교는 수천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바쁘지만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교내에 라디오 스튜디오를 갖추고 필립은 그 방송을 위한 순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필립: 선교사들은 힘들게 일하는데 익숙하지만 때때로 저희는 저희 앞에 놓인 일들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중요하고 대학교와 학교의 선교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전산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그 시스템 사용법을 교수진들에게 가르치는 일로 너무 바빠서 학교 외부로 좀처럼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전도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을 돕는 것을 제 선교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희는 주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희를 벨리뷰 대학교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이끄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어렸을 때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저를 뜻밖의 방법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해설자: 세계 도처로부터 일어나 어느 곳이든지 가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사용됩니다. 교사, 의사, 행정자, 일선 사역자 등 여러 선교사들이 매주 안식일학교에서 드리는 선교 헌금의 도움을 받습니다. 선교사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계속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월 17일 안식일

가나

## 축복받은 실망

에스텔라 은카마 온도

-----

- 벨리뷰 대학교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 대륙 바깥의 여러 나라들로부터도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재림교인인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전도 효과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리스도께 그들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 다음 안식일은 13째 안식일 헌금일입니다. 이번 헌금의 일부가 벨리뷰 대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풍성한 헌금을 드리기로 결심하십시오.

-----

에스텔라는 스페인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적도 기니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부터 가나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하나 잃어버림으로 너무 늦어 스페인에 갈 수 없을 때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벨리뷰 대학교에 다녔고 그래서 에스텔라는 그곳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다. 에스텔라의 부모님은 마지못해 그녀의 벨리뷰 진학을 허락했지만, 그녀에게 재림교회를 멀리하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 영적인 동요

에스텔라는 그 학교에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영적 부흥 주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성경 진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학교에서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녀가 어떤 날을 지키든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강사의 기별을 듣는 동안 그녀는 모든 성경 진리

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에 넘쳤고 그래서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내용이 진리임을 확신했지만, 그것에 대해 그녀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텔라는 진리를 찾으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질문들을 성직자인 친구에게 물어보았지만 그의 대답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침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 말할 시간

에스텔라는 망설이다가 가족에게 그녀가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화를 내실 것을 알았고 어떻게 하실지 걱정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왜 재림교인이 되기로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성경 진리를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성경절을 인용하여 설명하려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녀에게 어떻게 할지 결정해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에스텔라는 부모님의 전화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고 에스텔라는 그 학기에 자기 맘대로 등록을 해야 할지 어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 다음 부모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가 가족의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벨리뷰 대학교에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그녀는 혼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

에스텔라는 앞으로 학비를 어떻게 낼지, 학교에서는 학비를 내겠다는 보증도 없이 그녀의 등록을 받아줄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고 배운 하나님을 향해 섰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다고 보일 때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에스텔라는 학교에서 일을 구했고, 곧 한 후원자가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에스텔라는 가족이 그리웠고 특히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전화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족들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님을 부모님이 분명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 관계 회복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에스텔라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에스텔라가 말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사이에 중재의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고집 센 아이였지만, 제 언니가 어머니에게 제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바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변화됐는지 말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선택한 신앙이 진리이고 거룩한 것임을 부모님께 확신시켰습니다. 사실 언니는 저에게 제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도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제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도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언니가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텔라의 후원자는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신앙을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못 가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에스텔라가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더 좋은 계획, 저를 구원하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스페인에 못 가게 된 것이 아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적도 기니로 돌아가 벨리뷰 대학교에서 배운 영적 진리들을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 가운데 일부가 벨리뷰 대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그곳에서 그들의 구세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24일 안식일

# 13째 안식일 순서

시작찬미  
교장인사  
기도  
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금  
끝 찬미 찬미가 413장 “주여 나의 생애를”  
마치는 기도

\* \* \*

순서자 구성 : 4명이 이 순서를 준비합니다. 순서자들은 대본을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듣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인수가 적다면 2-3명이 번갈아 가며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 지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교과책 뒷면의 지도를 확대하여 사용하거나 안식일학교 홈페이지(www.sspm.or.kr)에서 3기 선교지 지도를 다운받아 액정 프로젝트로 스크린에 비춰 사용하십시오.

\* \* \*

해설자 : 오늘은 13째 안식일입니다. 이번 기 동안 우리는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에 속한 카메룬과 가나로부터 온 소식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지도에 이 두 나라를 표시합니다.]

기자1 :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에는 아프리카 서부지역 22개국에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는 863,000명 이상의 재림교인들이 있습니다. 390명 당 한 명의 재림교인 비율입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서부 전역에 흩어져 있는 7천 개 이상의 예배소와 교회들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의 북부 지역 대부분은 다른 나라들이 울창한 밀림 지역에 덮여 있는 것과 달리 사막이거나 반사막지대입니다. 대부분 바닷가

를 따라 위치하고 있는 현대적인 대도시들에는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많은 인구가 내륙 지역 전역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촌락에서 진흙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며 생활하면서 겨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달프므로,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결이 교육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은 가난과 한계생존의 삶을 딛고 일어나 그들의 꿈을 좇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재림교회는 모든 수준의 학교들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린이들은 그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가족들은 그들을 더 잘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회 지역에 속한 수백여 개의 삼육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재림교인 교사들은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더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13째 안식일 헌금은 서-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두 개의 삼육 대학교인 가나의 벨리뷰 대학교와 카메룬의 코센다이 삼육대학교 학생 및 교수진 모두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_\_\_\_\_ [기자2의 이름] 기자가 벨리뷰 대학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자2 : 벨리뷰 대학교는 1979년에 단과 대학으로 세워져 1997년에 종합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입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모든 시스템을 그 성장과 새로운 기술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벨리뷰의 입학생은 수 천 명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이 학교의 우수성과 높은 도덕적 수준에 대한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 대학교는 계속해서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동시에 찾아오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새로운 건물들이 교내에 세워지고 있고, 가나와 근처 여러 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은 이 학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없는 것 중에 필요한 것 하나가 바로 앞으로 교내 중심부에 세워질 교회입니다. 그 기초는 이미 놓였지만, 자금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지어지면 그곳은 지역사회 선교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학생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며, 대학교 졸업식 및 기타 중요한 행사들을

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학교와 가나의 재림교회는 이 교회 건축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 가운데 일부가 이 새로운 교회 건축을 실현시키는 일을 돕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벨리뷰 대학교가 모든 학생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오늘 풍성한 헌금을 드리도록 합시다.

해설자 : 탄생과 성장의 과정은 흥분되는 시간들입니다! 모든 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러한 시간속에는 적응의 시간도 있고, 긴장의 시간도 있고, 때로는 좌절의 시간도 있습니다. \_\_\_\_\_ [기자3의 이름] 기자가 우리 교회의 한 새로운 대학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겠습니다.

기자3 : 코센다이 삼육대학교는 카메룬의 수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새로운 교정이 지어지고 있는 아직 초기 단계의 대학교로 그 기대가 큼니다. 하지만 새 교정이 완공될 때까지 이 대학교 학생들은 좁은 삼육중고등학교 교정에서 함께 공부하고 지내야만 합니다.

이 대학교의 첫 번째 학생들은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수업 일정, 좁고 부족한 편의 시설, 그리고 시내에 살면서 힘든 수업일정에 맞춰 오가는 교수들과 함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졸업하여 교사, 간호사, 비즈니스맨 등 각자의 분야로 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와 카메룬의 우리 교회 본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 새로운 대학교 교정을 완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완공되면,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들어오는 수업료의 증가로 이 대학교는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학 프로그램은 이 대학교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지만, 학생들이 실제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과학 실습실이 부족합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 가운데 일부가 이처럼 절실히 필요로 되는 교실과 실습실이 있는 건물을 세우는 일에 사용됨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의료 학위를 받아 의료선교 분야에서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년 도에 이 학교에서 힘들게 지냈던 수십 명의 학생들도 졸업 후 의료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갔습니다. 미래의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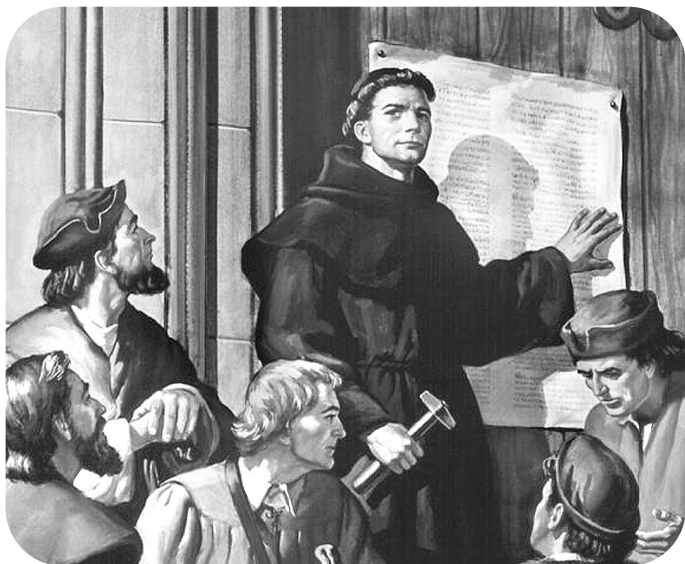
들을 위해 노력하는 아직 어리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대학을 후원하는 일에 함께 합시다.

해설자 :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의 두 개의 삼육대학교가 오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13째 안식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지갑을 열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따르고자 노력할 때 그들의 앞길에 성공이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합시다. 이 학교들이 등대처럼 빛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 사업장려



7월 2일 안식일

## 찬양이 있는 성경학교

대전삼육중학교회 담임목사 장도진

어릴 적 아련한 추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학교에서 배운 여러 성경의 내용들과 성경학교 노래들입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교인 수가 많지 않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린 적은 그리 많지 않고 주로 장년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이를 위한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성경학교 기간이었습니다.

그 때의 찬양들이 지금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의 가슴에 남은 중요한 추억이 되었고 제 생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몇몇 찬양들은 지금 저희 아이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시 듣거나 기억해 볼 때면 몇 명되지는 않았지만 성경학교에 함께 했던 친구들의 얼굴이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억들이 그저 어릴 적 추억에 불과할까요? 얼마 전 화잇 부인의 글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래는 영적 진리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무겁게 짓눌리어 절망에 빠질 것 같은 심령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린 시절에 부른 노래의 가사에서 하나님의 몇 말씀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유혹이 힘을 잃고 삶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갖고 용서와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지는 실례가 얼마나 많은가! 교육의 한 방편으로써, 노래의 가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 감미롭고 순결한 노래를 부르라. 그리하면, 비난하는 말이 더 적어지고, 쾌활함과 희망과 기쁨의 말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학교에 노래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학생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교사와 또 저희들끼리 더욱 친근해질 것이다”(교육, 168).

여러분,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자라면 가슴에 따뜻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7월 9일 안식일

## 고난의 학교

대전삼육중학교회 담임목사 장도진

이번 달은 각종 야영회가 많이 있는 달입니다. 올해도 야영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는 개척대나 학생 야영회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시험 준비에 한참이던 고3 시절 저는 그 해 합회에서 주최하는 학생 여름 야영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그 시기는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인지라 그 해에도 텐트를 쳤는데 많은 비로 인해 야영회가 끝나기 전에 텐트를 걷어야했습니다. 강의장 한 쪽에 교회별로 모여서 짐정리를 하고 집을 향해서 출발 할 때까지 그곳을 임시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기억해보면 그 때는 비가 많이 오고, 텐트가 무너지고, 옷이 물에 흠뻑 젖었던 것들이 그리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 대부분 야영회는 콘도나 수련원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텐트가 무너질 일은 거의 없지만 집나가서 자는 잠이란 늘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정해진 시간, 단체 생활, 수행해야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일보다 아주 큰 고난을 가져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슬픔의 학교에서 예비 훈련을 받는다.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직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시험은 더욱 더 철저하고 그 단련은 더욱 혹독하다. 다윗이, 비록 후년에 큰 죄로 손상을 입히기는 하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삼하 8:15)하였다는 경력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과 슬픔의 학교에서 받은 훈련 때문이었다”(교육, 152).

올해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야영회는 합회별로 준비될 듯합니다. 이 약간의 훈련이 우리를 다윗같은 사람으로 세우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16일 안식일

## 장막절, 오직 예수

대전삼육중학교회 담임목사 장도진

유대인들은 일 년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은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중에 주신 모든 추수물에 대한 감사와 출애굽 노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을 상기하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었습니다. 성전 마당 중앙에는 큰 등대들을 받쳐 주는 두 개의 높은 기둥이 솟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 후에는 모든 등에 불을 켜서 그 빛으로 온 예루살렘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이 예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을 기념하였으며 또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잊지 않아야 했던 것이고 장막절은 이제 다시 한 번 그들의 신앙을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매었던 것입니다. 각기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이제 임하시는 메시아의 시대를 고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은 이 절기의 핵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분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장막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돋는 아침 해를 보면서 우리는 재림의 그 시간과 오시는 주님을 다시 고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의 문을 여는 순간 비로소 예수님이 기억 나지는 않습니까?

이 해의 중반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중심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7월 23일 안식일

## 시간을 투자하자!

대전삼육중학교회 담임목사 장도진

얼마 전 동료 목사님께서 한 지역의 어떤 종교 수련원에 매주마다 관광 버스 행렬이 끊이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한창 성장하고 있는 교단인데, 기본적인 이성을 가지고 듣는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곳인지 누구든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젊은 사람들이 몰리고 교단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행렬이 끊이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간 가우뿔했던 의문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의 교리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재림교회 초기의 역사를 보면 밤을 새워서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토론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더 많이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열정은 사실 시간 투자로 나타납니다. 제 아무리 특별한 천재라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잠재적 천재로 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아하게 되면 늘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눈만 감으면 강이나 바다가 보이는 것처럼 좋아하게 되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혹은 시간을 투자해 매달리다 보면 그 투자한 대상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올 여름 매우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지요?

7월 30일 안식일

## 젊은이를 단에 세우자!

대전삼육중학교회 담임목사 장도진

초등학교 시절, 한번은 어느 안식일 느닷없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업장려를 맡기시며 안식일학교 시간에 읽으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매우 쑥스러움이 많은 아이여서 내키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명령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에 서서 내용을 읽어야했지만 앞에 서자마자 이상하게 흰 종이에 쓰여진 글씨들이 다 어디로 달아나 버렸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마음을 진정시키니 글자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내용을 바르게 읽었는지 거꾸로 읽었는지 모르게 시간을 마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어찌다 교회 학생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교회 단에 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끔 정상회도 해야 하고, 음악회, 학생 문학의 밤, 야영회 보고 순서, 학생 전도회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서 단에 서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자주 청중 앞에 서는 일이 있으면서 어느새 초등학교 시절처럼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도 내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생각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 후, 여러 계기로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단에 서본 경험을 손가락으로 꼽아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어릴 적 그 경험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아니 우리 아이들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8월 6일 안식일

## 최적의 피서지, 하나님

별내행복교회 담임목사 박정규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 116:7).

가장 더운 8월입니다. 피서라는 말은 더위를 피하여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피서라는 말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위는 집에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문명의 혜택으로 손 하나만 까닥하면 시원한 바람 속에 여름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네 삶은 복잡하고 답답하고 후덥지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위를 넘어 삶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몇 달 전부터 책을 보고, 인터넷을 뒤지며 알찬 휴가를 계획해 봅니다. 숙소를 예약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같이 갈 친구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며, 마음은 이미 시원한 바닷가에 있습니다.

여러 해 전 8월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기 위해 두 명의 친구와 재림 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우거진 수풀에서 뿔어져 나오는 상쾌함은 호흡이 끊어진 자에게 불어넣는 생기와 같았습니다. 산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 흐르는 냇물은 삶의 찌꺼기까지 말끔히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에 한 목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잘 알던 선배 목사님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휴가를 왔다고 했습니다. 손에는 복음 교역자라는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휴가 기간 내내 기도실을 오가며 참 휴식을 취하는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어디론가 떠날 계획을 합니다. 어디로 가든 좋습니다. 강으로, 바다로, 혹은 산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장소를 선택했든 그곳에 분명 하나님이 계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분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휴가는 피곤과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연계의 품속에서 그분의 숨결과 사랑 속에 참 휴식을 얻는 8월이 되길 바랍니다.

8월 13일 안식일

## 여행이 주는 의미

별내행복교회 담임목사 박정규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 중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암송되는 글입니다. 당시에는 농경문화와 목축문화,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랑 생활을 벗어나 이스라엘은 점차 농경사회로 정착하는 격변기에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목축업을 가중히 여겼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왔을 때 고센 땅에 따로 살게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정착을 하면서 농경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경문화의 주된 신인 바알 숭배까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때 바알 신에 빠진 그런 시대에 맞서 다윗은 과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이라는 문화적 바알이 이 땅에 대한 영원한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착하려 하는 것은 나의 안일함과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을 향해 한 발 내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왕국임을 되새기기 위해 여행을 떠나봅니다. 놀이만을 위한 관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한 여행이 되어야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랑 할 때에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여행은 하나님 찾아 나선 광야가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봄 성도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사업을 잠시 미루고, 휴가를 반납하고, 정착하려는 우리의 삶을 미루어 두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한 짧은 여정,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이곳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땅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진짜 즐거운 여행은 그 장소, 그 시간을 통해 하늘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 여름은 하나님 찾아 참 의미있는 여행을 하지 않으시렵니까?

8월 20일 안식일

## 우리의 이름, 성도

별내행복교회 담임목사 박정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우리는 여러 직함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 아들, 딸로서, 회사에서는 부장, 차장, 대리로서, 동호회에서는 회장, 총무로서,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 목사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갑니다.

상업성 전화가 종종 걸려옵니다. 보험 들라고, 은행에서 대출해주겠다고, 각종 상품들을 파는 전화들이 오면 나름대로 친절하게 받았지만 다 시간 낭비란 것을 안 뒤로는 가차없이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로 차갑게 끊어버립니다.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성 기계의 목소리면 통화시간이 2초로 단축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그런 전호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분명 낯선 목소리였고, 상업성이 분명했습니다. “\*\*은행카드 프레티, 어찌구 저찌구, 해외 여행.” 그런데 말끝마다 “목사님”을 붙이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인내해야만 하는 이름으로 저를 꼭 붙잡았습니다. 최고의 상술이었습니다. 차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저는 목사니까요.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주 앞에 그 이름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 맞는 삶을 위해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8월 27일 안식일

##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별내행복교회 담임목사 박정규

“큰일 났어요. 목사님. 미선이(가명)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다급하고 떨리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사고 3일 전만 해도 우리는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에 대한 새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절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도 찾지 못하던 인생의 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던 즈음이었습니다. 저와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종교를 바꿔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고와 슬픔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왜? 라는 의문과 슬픔속에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 다음 주에는 야외예배였습니다. 고인의 부군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장례를 주관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이겠지만 오시기 부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종종 교회를 출석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미선이의 어머니 침례식 자리에 아버지가 대신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자리는 비었지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희생이 있습니다. 값진 희생임을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 오시는 날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는 맺을 수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 인내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풍요로운 그리스도의 계절을 기대합니다.

9월 3일 안식일

## 기적의 100달러

동구능교회 담임목사 감철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기적의 100달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의 재정 중에 10,000달러를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그 10,000달러를 100달러 지폐 100장으로 바꿔서 설교 도중에 자원하는 100명에게 거저 나누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3가지 조건이 따랐습니다. 첫째, 그 백 달러의 돈은 하나님의 재산임을 잊지 말 것! 둘째, 그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것! 셋째, 그 사업의 결과를 시작한 날로부터 구십일이 되는 날에 모든 교인 앞에서 보고할 것! 그런데 그 돈을 받아든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의 핵심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도록 거저 주어진 100 달러,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돈을 받아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디에 사용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잊혀질만하면 또다시 지갑 속에 보이는 그 지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확히 90일이 지난 2001년 2월 7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든 2000여명의 사람들로 교회 근방 1Km이내 거리까지 주차한 차들로 붐볐고 교회는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10,000달러는 석 달 동안 십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나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 100달러로 100명의 지원자들이 그동안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으로 교회는 전에 없는 뜨거운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고민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계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소망, 142).

9월 10일 안식일

## 그리스도 마케팅

동구능교회 담임목사 감철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행 5:42).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모토 마사루]는 책을 보면 물은 사람의 감정을 읽는다고 합니다. 즉, 물은 글을 읽고 그 내용에 따라 반응을 달리합니다. 유리컵에 ‘너 사랑한다!’ 라는 말을 쓰고 그 앞에 하루 종일 두고 난 후 그 담겨 있던 물을 현미경으로 보면 그 결정체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똑같은 물을 유리컵에 담아놓고 그 앞에 종이예다가 ‘나쁜 놈!’ ‘죽어라!’ 이렇게 하루 동안 써 놓고 보면 그 물의 결정체가 다 깨지고 찌그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먹을 때 마다, ‘참 고맙다..다...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물은 산삼에 비할 정도가 아니고.....인삼 녹용에 비할 정도가 아닌 엄청나게 보약으로 변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156-159쪽에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위치와 상태가 어떠한 간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이다.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격려와 권면의 말, 이기심 없는 봉사, 그대의 기쁨에 넘치는 태도, 친절한 말, 시련과 마음의 고통과 실망을 동정,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 주는 것, 그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접근할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9월 17일 안식일

##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하여

동구능교회 담임목사 감철규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막 12:42). “가난한 과부는 그가 드린 적은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의 생활비를 바쳤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업에 이 두 푼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음식을 희생하였다. 그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큰 필요를 모른 채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시대의 소망, 614~616).

“예수님의 평가 후에 자기의 행동이 이해와 평가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적은 돈을 보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쓰도록 충고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살찐 제사장의 손에 넣어 주면, 연보궤에 들어온 많은 값진 예물 가운데서 그것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동기를 아셨다. 성전 봉사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라고 그 여자는 믿었으며, 성전을 유지함에 그의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다. 그 여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으니 그의 행동은 언제나 자기의 기억에 기념비가 되고 영원히 그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의 마음은 그의 예물과 함께 바쳐졌으니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구호봉사, 203~204).

그녀는 그 적은 두 푼을 생활비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내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모른 채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업(선교, 봉사, 구제)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아낌없이 투자합시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9월 24일 안식일

##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동구능교회 담임목사 감철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고전 2:4).

우리는 전도의 주된 관점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세스(과정)입니다. 둘째로 전도는 회심보다 제자 훈련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로 전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전도는 관계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관계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4가지 순환주기가 있으며 이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선교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하기’입니다. 날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카드를 만들어 불신자들 세 명을 기입하여 기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금식을 하면서까지 영혼을 위해 기도로 불을 지피는 구령의 열정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관계 세우기’입니다. 관계를 세워 가는데 있어서만큼은 무엇보다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소중한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함께 추수하기’입니다. 서로간의 관계를 맺은 구도자들과 인도자들이 함께 행사를 준비하여 친교를 도모하며, 공동체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영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번식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새 신자로 하여금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초대하도록 돕습니다. 전도는 새 신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고후 5:14).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강권하는 그 능력 앞에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 :: 별내행복교회 소개 ::



**별내** 행복교회는 서중한합회 목회자 채용 개척 프로그램에 지원한 박정규 목사의 개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열 명도 채 안 되는 청년들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명은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구원은 생명이고, 생명은 결국 삶의 행복한 열매를 맺기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2008년 2월 퇴계원에 상가 건물을 전세로 빌려 예배를 드리다가, 6월 7일 별내행복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 뒤인 2010년 6월에는 교회로 승격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댄 어린 아이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리기에 순수하고, 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 별내행복교회 현황 |** 현재 별내행복교회는 안식일 평균 출석생수 약 70명이고, 이 가운데 절반은 학생 청년들입니다. 개척 교회 특성상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열정과 사랑이 넘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여성 기도회, 제자 훈련반, 구역반과 각종 기도 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고, 금년에는 필리핀 선교 봉사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장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30평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모반, 어린이반, 식당, 주방까지 다 활용되고 있어 매우 비좁은 상태입니다. 넓고 편안한 공간 속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선교지소식 · 사업장려(계간)

2011년 6월 10일 인쇄  
2011년 6월 17일 발행

편역인 강 순 기  
발행인 김 대 성  
인쇄인 김 시 영  
발행소 시 조 사

서울·동대문구 회기동 66  
☎ 3299-5232

【값 1,500원】

#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

2011년 3기

West-Central Africa Division



연합회	교회수	교인수	인구 (2009.1)
중앙 아프리카	976	128,321	38,828,000
동 나이지리아	474	157,900	45,902,000
가나	1,119	348,855	23,947,000
서북 나이지리아	357	113,665	102,169,000
사헬	154	42,491	107,850,000
서 아프리카	107	43,667	10,951,000
계 (2009. 6. 30)	3,187	834,899	329,647,000

- 특별 선교 계획
- 1 가나의 벨리부 대학 교회 건축
  - 2 카메룬의 코센다이 삼육대학교 과학관 건립
  - 3 어린이 프로젝트 : 안식일학교로 초청하기 위한 증정용 학용품 세트
- \* 자세한 정보는 [www.adventismission.org](http://www.adventismission.org)에 접속하세요.